

북한개발소식

2026 MAR

03

통권 245호

이달의 주제

양안 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선교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3화)

북한뉴스

북한 제9차 당대회 개막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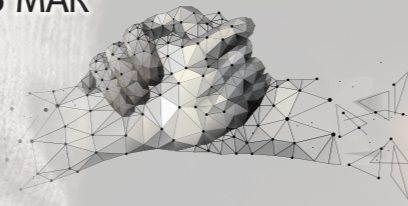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양안 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6 MAR



이달의 주제 :

양안 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선교

- 권두칼럼 **01** 양안 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선교
- 칼럼_1 **11** 주성종 _ 양안(兩岸) 관계, 한반도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
- 칼럼_2 **18** 최재덕 _ 한중 관계 복원의 의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이다
- 칼럼_3 **23** 문성묵 _ 양안(兩岸) 관계와 한중(韓中) 관계
- 탈북민 수기 **29**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3화)
- 북한뉴스 **33** 북한 제9차 당대회 개막 외
- 서평 **37**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기독교 박해 종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최근 양안 관계(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중화민국(이하 대만) 간 관계)가 미·중을 넘어 동북아 전반에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5년 11월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공격이 발생한다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 사태에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하면서 중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발언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2025년 12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다로 조준하는 군사적 마찰이 발생했으며, 2026년 1월에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종 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관광 제한(한일령)을 단행했다. 2026년 2월 13일~15일에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에 대해서 “중국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군국주의 망령이 여전히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¹⁾ 하지만 일본 다카이치 정부는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개헌 발의가 가능한 수준의 압승을 거두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중국의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²⁾

1) 중앙이, 원혜서 서방과 연쇄 회동...미국 견제·대만문제 단속, 뉴스1 (2026.02.15.),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074564>>
 2) “외신이 본 다카이치 압승 요인 '대중국 강경기조·사나카츠 열풍'”, 머니투데이 (2026.02.11.), <<https://www.mt.co.kr/world/2026/02/09/2026020911365768986>>



〈일본 다카이치 총리(좌)와 중국 시진핑 주석(우)〉

대부분의 독자에게 양안 관계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양안 관계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북한 선교의 관점에서도 한중 관계 및 북중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안 관계란 무엇인지, 이 문제가 왜 한국과 한

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선교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관련된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안 관계란

양안관계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중화민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1949년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퇴각한 '국부천대' 이후 형성된 특수한 대립 관계이다. 초기에는 어느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인지를 두고 갈등했으며, 1950년대 마쭈, 진먼다오 포격 사건(1954~55년 제1차 대만해협 위기, 1958년 제2차 대만해협 위기), 1995~96년 군사 충돌 위기 (제3차 대만해협위기) 등 여러 차례의 군사적 위기를 거치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긴장이 지속되었다. 양안 관계에 대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통일을 목표로 삼지만, 대만은 시기에 따라 대륙 수복, 92컨센서스³⁾ 기반의 교류, 혹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응해 왔다.

통일 방식과 정체성 문제는 양안 갈등의 핵심이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 등과 같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통일 모델로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대만을 중국 본토에 편입하는 통일을 추구한다. 또한 대만이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부 세력이 간섭할 경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은 과거에는 중국 본토 수복 노선을 취했

으나, 현재는 크게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나뉘어 있다. 보수 진영(범록 연맹) 측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대만이 중국 본토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본토)과 중화민국(대만)이 각각의 정부로서 대화해야 하며,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범람 연맹) 측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정적이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존재라고 보며, 그중 일부는 중국에서 독립된 대만을 건국하자는 입장을 보인다. 최근 집권한 민주진보당 정부(차이잉원, 라이칭더)는 대만 독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중화민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대만은 서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신양국론'적 입장을 취하며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⁴⁾

최근 양안 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적인 화약고로 부상했다. 미국은 대만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며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해 '연합리검'이나 '정의사명'과 같은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정례화하여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22년부터 대(對)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정례화, 상시화하며 대(對)대만 회색지대 분쟁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⁵⁾

양안 무력 충돌 가능성은?

양안 문제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 또는 양안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다. 중국의 전면적인 대만 침공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전쟁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피해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양국 간의 국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2년을 넘는 장기전으로 치달았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며 중국 내에서 대만 침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경향도 관찰된다.⁶⁾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군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대만은 바다라

3)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는 양안관계 원칙. 90년대 초, 대만이 중국 본토 수복 노선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중국과 대만 간의 비공식 대화에서 도출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이해가 다른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타협책의 일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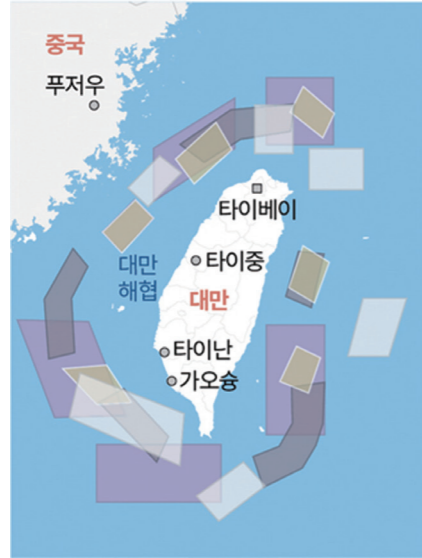
4) "대만해협(양안관계) 분쟁과 미·중 전략 경쟁", 한국국방연구원(KIDA) 세계분쟁정보 (최종 갱신일: 2024.11월)

5) 회색지대 분쟁은 무력분쟁 이하 수준에서의 위협과 분쟁으로서, 상대국의 무력 대응을 이끌어 내거나 혹은 전면전 개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강압하여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행위나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이영학, "대만해협 분쟁 분석 및 평가", KIDA 세계분쟁정보 (마지막 갱신일: 2026년 1월) p. 19. 참조.

6) 김의·김지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미·중의 양안관계 인식", 중국과 중국학 (제54호, 2025년), pp. 131-136.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 2022년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 당시
- 2024년 5월 '리젠-2024A'
- 2024년 10월 '리젠-2024B'
- 2025년 12월 29일 '정의의 사명 2025'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지역 (그림 = 한국일보¹¹⁾)〉

는 장애물에 더해 상당한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대만 침공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이다.⁷⁾

그렇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3기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4연임을 위한 성과의 일환으로 통일을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에 주목하여 2027년을 대만침공 시기로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으며,⁸⁾ 대만이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거나, 미국의 개입 여력이 여의치 않고 대만 방어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이 침공을 결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⁹⁾

꼭 전면적인 침공이 아니더라도 대만을 봉쇄하는 무력행사를 통해 대만을 투항시키는 전략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옵션으로 거론된다. 대만은 에너지, 물자, 통신망 등 생존을 위한 핵심 영역을 모두 바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도 이러한 봉쇄 옵션의 실현 가능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

양안 문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중국의 대(對)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 하나는 예상되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이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대만 다음으로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국가로 꼽힌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의 GDP가 23.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당사국인 대만(-40%)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다.¹²⁾ 대만 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대만 동부 해협을 통해 이동

한다.¹³⁾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이 TSMC 등 대만의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적 피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안보 이슈다. 특히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¹⁴⁾에 따라 필요시 양안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한국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0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라는 기본 임무는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합의한 바 있지만, 당시 합의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밖 다른 지역 투입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주권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였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동맹의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해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즉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러시아 등 역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만 방어에서 한국이 후방지원을 넘어 중국에 대한 작전 수행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¹⁵⁾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과 한국의 거점화 가능성은 한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주한미군이 다른 전장에 투입됨에 따라 미군을 통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양안 충돌이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를 들어 한국 내 미군 기지가 대만 작전의 발진기지로 활용될 경우, 평택이나 오산 등의 기지가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¹⁶⁾

한반도와 대만 중 어느 한쪽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의 방어가 한 쪽에 집중되는 틈을 타 반대편에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이전부터 '두 개의 전쟁' 시나리오로 거론되어 왔다.^{17), 18)} 한

13) 이우태·황태연. "대만 선거 이후 양안 위기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07, 2024.1.15.

14)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미군이 전 세계적 위협에 더 기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작전 목적에 따라 신속히 이동·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정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025.10.31. 참조

15) Paul B. Stares and David Sacks, "The Next Taiwan Crisis Won't Be Like the Last: How to Prepare for New Danger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December 2025), <https://www.cfr.org/reports/next-taiwan-crisis-wont-be-last>

16) 김상기 외, 「미중 전략경쟁 시대 양안 관계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4-06, pp. 170-171.

17) Markus Garlauskas,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must be ready to deter a two-front war and nuclear attacks in East Asia", Atlantic Council Report (2023.08.16.),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report/the-united-states-and-its-allies-must-be-ready-to-deter-a-two-front-war-and-nuclear-attacks-in-east-asia/>

18) Paul B. Stares and David Sacks, 앞의 글

7) 주은식, 앞의 글, pp. 205-207.

8) 주은식, 위의 글, pp. 202.

9) 김상기 외, 앞의 책, pp.165-166.

10) 정현욱,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정의사명-2025': 특징, 배경, 전략적 함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781호 (2026.01.12.), pp. 7-8.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122909220000923?did=NT>

12) "中, 대만 침공시 한국 GDP 23% ↓...대만 이어 두번째로 타격 커", 연합뉴스 (2024.01.10.),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0002300072>

국이 연관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은 북한의 참전이나 군사 행동 가능성이다. 대만 사태로 인한 주한미군이 이탈할 경우, 북한이 이를 기회로 오판하여 대남 군사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¹⁹⁾ 또한 중국이 한국을 미군의 병참 기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부추겨 주한미군의 발을 묶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꼭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의 다양한 국지도발을 일으켜 중국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 21)} 최악의 경우 중국과 북한 간의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이 직접적인 대중 군사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직접적 개입은 북한 자체의 안보 자원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미국과 군사적 대결에 나서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또한 ‘두 개의 전쟁’이 중국에게는 전략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북한에게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 약화와 전략적 고립 심화라는 위험을 떠안는 상황으로 인식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²³⁾ 이처럼 다양한 시나리오가 공존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양안의 충돌이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처한 난처한 입장

한국은 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꾸준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그간 전략적 모호성을 발휘하며 양안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미국과 중국 양측의 압박이 한층 고조되고 있고, 이는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되어 있음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5년 5월 15일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

할이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및 대만 해협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²⁴⁾ 게다가 대만에 유사 사태 발생 시 동맹국의 직접적인 참여 또는 파병에 대한 압박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관찰되는 가운데 한국도 그러한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 일본과 호주의 국방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하도록 압박하였다고 보도했다.²⁵⁾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한국군 양안 개입은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²⁶⁾

중국 역시 양안 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요구해 왔다. 올 1월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²⁷⁾ 이러한 중국 측의 요구 때문인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관영 CCTV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²⁸⁾

현재 한국은 중국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을, 미국에는 북한과 대치중인 안보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해왔던 국방비 증강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미·중의 압박을 회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양안 문제가 한국에 난처한 이슈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25년 5월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육상군 태평양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추운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했다.〉

19) 강준영, “양안관계 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리포트 2022(2012.12), pp. 219-221.
 20) 주은식, “양안사태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 전략연구 통권 제93호 (2024.07), pp. 221-222.
 21) 김상기 외, 앞의 책, pp. 171-172.
 22) 김상기 외, 위의 책, pp. 170-171.
 23) 이상규, “한반도 위기와 대만사태 동시 발생 시 북·중·러의 전략적 계산”, KIDA 안보전략 FOCUS 제 26-7호 (2026.01.19.).

24) 동맹의 역할, 대중 견제로 넓히려는 美, 조선일보 (2025.05.19.),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5/17/XJKPZFMG7RG2NBKQOF5NRI2MLQ/>
 25) “미·중 전쟁 땀 어떤 역할 할 거냐”...일본·호주에 입장 밝히려는 미국, 경향신문 (2025.07.1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32113025>
 26) [단독] “한국군 양안 개입은 레드라인”... 美에 설명, 국민일보 (2025.08.0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4386826>
 27) 中, 한중 통화서 “하나의 중국 준수” 요구...韓 “존중 입장”(종합), 뉴시스 (2026.01.01.), <https://www.news1.kr/view/NISX20260101_0003461917>
 28) 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오해 풀고 한중 관계 새 단계로 도약”, 뉴스1 (2026.01.02.),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27336>

선교 현장과 기도 제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 관계는 단순히 대만 인근 지역의 문제를 넘어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한미, 한중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선교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과거 사드 배치 사태로 인해 선교사들뿐 아니라 일반적인 한인 교회 사역자들까지 대규모 추방을 경험했던 만큼 선교 현장에서는 이 문제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선교 현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는 먼저 양안 문제로 인한 외교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일본 등이 보이는 강경 노선과,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한일령(限日令)의 모습은 과거 중국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떠올리게 한다.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경제적 협력이 불가피한 중국 사이에서 양안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미국도 공식적으로는 대만 유사시 개입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양안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중 관계의 악화와 함께 북한 선교 환경이 최악의 국면에 직면할 것이 우려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안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없더라도 적성국에 준하는 국가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내 한인 사역자들의 체류와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사역이 중국 당국에 의해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던 백모 선교사가 간첩죄로 수감되어 장기 억류되는 등 북러 밀착 관계 속에서 러시아 내 한인 선교사들의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압박이 거세어진 점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반간첩법 개정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경우보다도 더 강력한 감시와 처벌, 추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양안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관계를 보이면서 러우 전쟁에 북한이 자국 군대를 파병한 것과 유사한 모종의 군사 협력이 유사시 북중 간에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대만 유사시 한반도까지 전장이 확대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양안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로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한국 교계 및 선교계의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이슈가 종교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양안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대만해협을 통한 종교 교류가 시작되면서 대만 교회는 열정적으로 대륙 사역에 참여하고자 했지만, 양안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러한 교류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고 꾸준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 온 대만장로교회(PCT)에 대해 중국기독교협회(中國基督教協會, China Christian Council)명의로 규탄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²⁹⁾ 한국 교회는 양안 관계가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임을 인식하고 관련된 발언이나 활동이 선교 현장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불러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양안 문제가 한국과 주변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양안 문제를 지혜롭게 관리함으로써 정치·외교적 갈등이 선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하자.

둘째, 한국 교계와 선교계가 양안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영적 지혜를 발휘하도록 기도하자. 정치적 이슈에 휩쓸리기보다 선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역의 본질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분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셋째,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무력 충돌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을 초래한다. 위정자들이 무리한 선택을 내리지 않도록,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간구하자.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양안의 충돌이 한반도로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며, 특히 북·중 밀착 관계 속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

29) 카이인 앨리스 헤이가, "양안 관계를 바라보는 대만교회의 시각", 기독교사상 2024년 9월호, pp.118-121.

〈사드(THAAD)배치 이후 이어진 중국의 선교사 추방 관련 당시 뉴스보도(사진=GOOD TV 뉴스 캡처)〉



도 배제할 수 없다. 우려되는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북한 선교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양안 문제는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타 지역의 분쟁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러·우 전쟁에 참전한 북한의 사례를 통해 이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 글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더 넓은 시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칼럼 1

양안(兩岸) 관계, 한반도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

주성종 선교사 (대만)

1. 대만 태동의 역사

1) 중화민국의 탄생과 대륙의 혼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1912년 쑨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ROC; Republic of China)이 건국되었다. 그러나 중화민국은 위안스카이의 독재와 군벌들의 난립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장제스의 국민당이 북벌을 추진하며 1921년 창당된 중국 공산당과 국공합작을 했으나 이념 차이로 인해 곧 결렬되고 내전이 시작되었다.

2) 대만의 독자적 역사 (일본 식민 통치)

이러한 대륙의 혼란 시기에 대만 섬은 전혀 다른 역사를 걷고 있었다. 청일 전쟁(1894~1895)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을 일본에 할양했다. 이후 대만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50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중국 대륙과는 분리된 근대화 과정을 겪는다.

3) 국공내전과 '두 개의 중국' 형성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자, 대만은 연합국의 합



의에 따라 당시 중국의 합법 정부였던 중화민국(국민당 정부)에 반환되었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제2차 국공내전이 격화되었는데, 부패와 무능으로 민심을 잃은 국민당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패배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PRC; People's Republic of China) 수립한다. 패배한 장제스와 국민당 정부는 1949년 12월, 대만으로 철수한다(국부천대; 國府遷臺). 이로써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의 '중화민국'이 대만해협 양측에 대치된 양안(兩岸) 체제가 형성되었다.

4) 분단 체제의 고착화 (한국전쟁의 영향)

1950년 초, 미국이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declaration)'을 발표하여 대만 포기 정책을 시사했고, 중국 공산당은 대만 점령을 목전에 두었으나,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저지되었고, 대만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생존을 확보하며 오늘날까지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2. 양안 관계(Cross-Strait Relations)

양안(兩岸) 관계는 지리적으로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대륙인 서안(西岸)과 대만 섬인 동안(東岸)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국가 대 국가'의 성격을 피하기 위해, '두 지역(양안)의 관계'라는 의미의 학술적·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양안 관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체제 경쟁(사회주의 vs 민주주의), 민족 정체성 갈등,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특별히, 정냉경열(政冷經熱), 즉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중적인 구조를 보인다.

3. 양안 관계의 갈등

1) 역사적 측면: '중국인'에서 '대만인'으로의 정체성 변화

대만은 50년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으며 중국 본토와는 다른 역사적 경험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만인'이라는 내부적 동질성이 싹텄다. 1945년 반환 후, 국민당 정부(외성인)의 명·청시대에 이주해 온 본성인에 대한 차별 정책, 그리고 1947년 2.28 사건(본성인 학살)은 대만인들에게 "우리는 중국인(국민당)과 다르다"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이는 또한 대만 독립 의식의 뿌리가 되었다.

민주화와 국제적 고립(UN 탈퇴)을 거치며,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오직 대만인'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2024년에 60%를 넘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대만을 독자적인 공동체로 인식하는 젊은 세대(천연독; 天然獨)의 등장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호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정치적 측면: '하나의 중국' vs '주권 독립' 이념 대립

국가의 정의와 미래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로 본다.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식을 제안하지만,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대만(ROC)의 입장은 어떠한가? 국민당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달리함)을 수용하며 중국과의 교류와 안정을 추구한다. 그러나 민진당(현 집권당)은 '92공식'을 거부한다.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중화민국)이므로 중국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홍콩 사태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했다.

3) 외교적 측면: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양안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화약고가 되었다. 미국의 전략으로,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第1道線)

1) 1992년 11월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가 회담을 갖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이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한 것
2)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섬들의 연결선으로, 군함과 전투기 통과를 통제하는 작전선(作戰線)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장벽'인 셈이다.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의 본사 전경>

一島鏈線 ; First Island Chain)’의 핵심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며, 최근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 개입의 지를 더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며, 대만 문제는 타협 불가한 ‘핵심 이익’이자 내정 간섭 문제로 규정한다.

4) 경제적 측면: 호국신산(護國神山) TSMC와 반도체 방패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경제, 특히 반도체 산업은 양안을 잇는 동시에 갈등의 인질이 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을 장악한 대만의 TSMC는 대만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테크 산업과 중국 경제 모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일명 실리콘 방패인 ‘호국신산(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칩4 동맹³⁾’ 등을 통해 대만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반도체가 양안 및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전장이 되고 있다.

4. 양안 관계와 한반도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다. 즉, 양안 관계의 위기는 한반도의 안보 및 경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연동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 군사·안보적 파장: 주한미군과 북한의 오판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공군 등)을 대만 방어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략적 유연성’이라 부르는데, 이는 곧 한반도 방위 전력의 공백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안보 공백을 틈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거나, 중국이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즉, 대만의 위기가 한반도의 전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적 동시성'의 위험이 존재한다.

3) 2022년 미국의 주도 하에 결성될 예정으로 알려진 반도체 4국(미국,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협력 체제

2) 경제적 타격: 생명선 봉쇄와 반도체 쇼크

대만 해협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약 33%,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경제 생명선이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한국 경제는 에너지 수급 중단과 물류 마비라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블룸버그 등은 대만 전쟁 시 한국 GDP가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산맥이다. 전쟁으로 TSMC의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IT·제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혼란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3) 외교적 딜레마

한국은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한국의 개입을 강력히 경고하며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어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위험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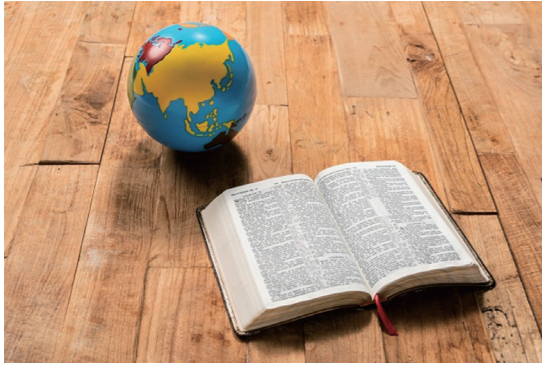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양안 관계의 불안정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대만의 공산화를 막아주었듯, 현재 대만의 안보는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대만 해협의 파고는 곧바로 한반도의 안보 공백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와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5. 양안 관계와 선교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정치·군사적 갈등을 넘어 동아시아 선교 지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안 관계를 선교적 관점에서 분석과 한국 교회의 전략적 방향성을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한다.

1) 중국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전략적 우회로’이며 ‘새로운 허브’로서의 대만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은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며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정교회에 대한 단속, 설교 내용 검열(공산주의 이념 포함 강요), 선교사 추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적인 본토 선교가 어려워



진 상황이다. 이렇게 본토와 홍콩의 정치적·종교적 환경이 제한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만이 중화권 선교의 '최후의 보루'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떠올랐다.

대만은 전 세계 중화권에서 기독교 출판 및 미디어 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중국어 기독교 자원(번역, 디자인, 출판 등)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만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화교(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

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최근 대만 교회와 화교 교회들은 연합하여 타문화권 선교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면, 향후 중국 본토에 대한 직접 접근보다는, 대만을 베이스캠프로 삼아 중국어권 자원을 생산하고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을 우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안보 연동성'에 따른 위기와 기회

양안 관계의 불안정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이는 북한 선교 환경에도 직접적인 변수가 된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력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북 억지력 약화와 북한의 오판(도발)을 부를 수 있는 '전략적 동시성'의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안보 불안은 북한 선교 및 인도적 지원 통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동아시아의 두 화약고(대만, 한반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대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북한 정권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쇄국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안 관계의 변화가 가져올 동북아 정세의 급변은 북한 선교의 문이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영적, 물적 대비가 필요하다.

3) 동아시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대만 선교 전략 및 방향성

한국 교회는 대만 교회에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동아시아 복음

화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① 동반자적 협력 강화 (Partnership): 대만 교계 지도자들은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과 연합을 높이 평가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대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체질을 개선하고, 타문화 선교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세계 선교를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② 다음 세대 사역 집중 (Next Generation): 대만의 젊은 세대(소위 '천연독' 세대)는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대만의 독자성을 중시하며, 기성세대의 종교 방식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관계성 결핍을 겪고 있다. 한국 교회는 청년 사역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디어와 문화를 활용한 접근을 통해 대만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③ 화교 네트워크 활용 (Network): 대만은 전 세계 화교 네트워크의 중심축 중 하나이다. 한국 교회는 대만 교회와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북미, 유럽 등에 퍼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선교 자원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④ 복음 중심의 연합 (Gospel Centered Unity): 최근 대만 교회 내에서 선교를 향한 연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연합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건강한 선교 신학을 공유하며 함께 동아시아 복음화를 이끌어가야 한다.

결론으로, 양안 관계의 긴장은 역설적으로 대만을 '중화권 선교의 허브'이자 '세계 선교의 파트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한국 교회는 대만 교회를 통해 중국 선교의 문을 우회적으로 열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동아시아 선교 벨트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의 의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이다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약 8년 만에 재개된 대통령 국빈 방중이었다.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다시 이어지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 복원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방중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중국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고 관계 복원의 제도적 출발선을 다시 그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립이나 충돌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하며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에 외교·안보·경제 역량을 집중시키며 자국에 유리한 질서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중심축도 안보 경쟁보다 기술, 산업, 공급망을 둘러싼 구조적 경쟁으로 이동했다. 이런 구조적 전환기에 한중 관계 복원은 한국이 외교적 자율성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중 관계 복원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경제·기술 협력의 재설계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대의 교역 상대국이자, 생산·투자·공급망 측면에서 핵심 파트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한중 간 관계는 경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 구조를 이룬다. 이번 방중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무역 확대가 아니라, 기술 규칙과 산업 질서의 공동 설계자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출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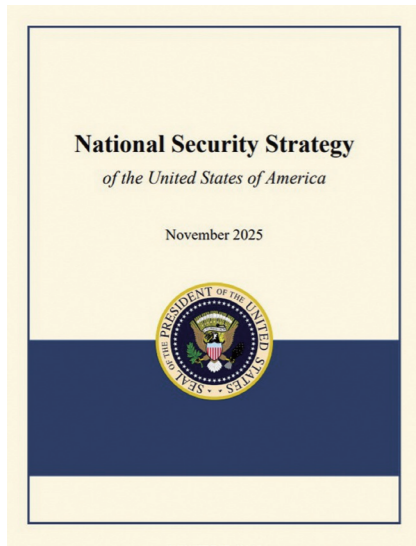
그러나 한중 관계 복원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회복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지리적·경제적 연계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최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한반도 사안의 전략적 우선 순위가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한중 간 신뢰와 협력이 회복된다면, 한국은 중국을 대북 정책의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북 관계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전략 환경 속에서 구조화된다. 한중 관계 복원은 남북 관계 복원의 매우 현실적인 외부 조건이다.

물론 한중 간에 여전히 민감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외교 채널이 복원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화와 협력이 재개되는 순간, 갈등은 관리 가능한 변수로 전환된다.

지금 한중 관계 복원은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동맹은 종속의 틀이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의 협상력과 한국의 외교 자율성을 함께 확장하는 선택이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한국 외교가 변화하는 미중경쟁과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다. 한중 관계 복원은 경제 회복의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NSS)〉

지렛대이자, 한반도 평화의 외교적 토대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기에서 전략 좌표를 다시 설정하는 선택이다. 한국 외교의 자율성 확대는 다음 10년을 규정할 외교의 방향타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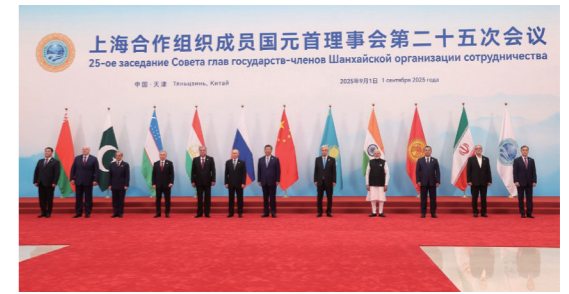
2025년 12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이번 문서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국을 ‘체제 전환의 대상’이나 ‘이념적 위협’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이념 대결 구도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대만해협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사안”으로 명시됐지만, 미국의 직접 개입을 전면내 내세우기보다는 동맹국들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동시에 NSS는 기술·산업·공급망을 핵심 안보 영역으로

명시하며, 미중 경쟁의 무게중심이 군사에서 기술·경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특히 주목해야 할 변화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는 점이다. 한반도 사안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재조정됐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의 세계 관리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번 NSS 내용은 미국의 전략적 여력과 세계 관리 방식이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50%를 차지하며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세계 GDP 비중은 약 25% 내외로 줄었고, 반면 40여 년 전 세계 경제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은 약 18% 수준까지 올라왔다.

중국의 고속 성장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다. 그러나 ‘중속 성장’ 국면으로 전환된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로봇, 드론, 방산, 위성·우주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빠른 추격 단계에 진입했고, 반도체 자립을 위한, 이른바 ‘반도체 굴기’ 역시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딥시크(DeepSeek)’와 같은 AI 생태계 확장은 중국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 표준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은 ‘중국 기술 표준 2035’와 같은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글로벌 기술 규칙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규칙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조정이 만들어내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채우려 한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변 전략을 조율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의 양옆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선 것은 북·중·러 간 전략적 연대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장면이었다. 최근 북·중 관계가 빠르게 밀착되고,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의 연장선에서 동북 3성 재할성화와 동부 지역 개발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시선이 동북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2025년 8월 31일~9월 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경제협력기구 정상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

2025년 8월 말 중국 텐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도 단순한 정례 회의를 넘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준 사례였다. 이 회의는 역대 정상회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부각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2035년까지의 SCO 발전 전략과 함께 ‘텐진 선언’이 채택되며, 안보를 넘어 경제·과학기술·디지털 경제·인프라 등 협력 영역을 대폭 확장하는 장기 비전이 공식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동북아와 유라시아에서 제도적·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드러낸다.

2025 NSS에서 미국이 중국을 체제 경쟁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현실을 반영한 선택이다. 미국은 과거처럼 모든 지역의 질서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졌고, 미중 경쟁도 군사적·안보적 충돌보다 기술·경제 중심의 장기전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만해협 문제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동맹 네트워크로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조정이다.

미국의 전략 변화는 단기적으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를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해군력과 국방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미국과 대등한 전면전 능력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미국 역시 대규모 군사 충돌을 감당할 정치적·재정적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미중 경쟁은 ‘전쟁’이 아니라 ‘기술·경제 중심의 구조적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련의 전략 환경 변화는 한국에 중대한 함의를 던진다. 먼저 분명히 해야

양안(兩岸) 관계와 한중(韓中) 관계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할 점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국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 전제다. 그러나 동맹의 중요성이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율성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조적 전환기에는 동맹을 ‘종속의 틀’이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미중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의 자율성은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들다. 그러나 지금의 구도는 다르다. 미국은 고립주의 성향을 강화하며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동북아에 전략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협력 프레임을 병행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구조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NSS에서 북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다. 한국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자율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은 동맹의 틀 안에서 능동적인 전략 행위자로 변모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동맹 내부에서 한국의 독자적 이익과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국과는 갈등을 관리하면서도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선택적 개입주의’와 ‘중국의 동북아 집중’은 한국이 수동적 행위자에서 능동적 전략 행위자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적 창이 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다시 확장될 수 있는 전환점이다. 이 기회를 살리는 것이 지금 한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안 관계’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의 정치·군사 관계”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양안’이란 대만 해협 양쪽 해안을 가리키는 말로, 서안(대륙)과 동안(대만)을 마주 보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대만 해협은 양안 관계에서 상징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다. 양안 관계는 1949년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공산화 통일하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정부를 이전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대만은 중국 대륙을 미수복 본토로 간주했고,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할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이후 80년 가까이 양안 간에는 대화와 협력을 모색한 시기(1980년대 초~2,000대 초)도 있지만, 이 기간 중에도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기가 있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긴장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양안 관계의 핵심 쟁점은 역시 대만의 국체 인정 여부로서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과도 맞물려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고 합법적 정부는 하나라는 주장으로 중국은 이를 외교의 전제로 삼아왔다. 미국은 1972년 미중 공동성명에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대만 주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대만과는 단교 조치를 취한바 있다. 1970년까지 중화민국(대만)이 유엔에서 상임이사국 지위 등 대표권을 행사해 왔지만, 1971



〈대만 금문도(진먼따오)를 순찰하는 대만 해안경비선과 그 뒤로 보이는 중국 사면시의 모습〉

년 중국이 이를 승계하고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공산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의 국제적 입지는 크게 제한되었다.

양안 관계가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긴장 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2012년 시진핑이 중국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우면서부터이다. 중국몽이란 2050년까지 중국이 지배하는,

이른바 중화세계질서를 수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이다. 중국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일대일로와 초한전(超限戰)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냉전 시기 이후 유럽을 중시하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미중 간 갈등이 국제질서는 물론,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 일본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일본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양안 관계를 둘러싸고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양안 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현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전망을 한 후,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적 시사점, 평화를 위한 기도 제목 순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양안 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현실태

최근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의 AFP 통신과의 인터뷰 내용과 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을 보면 현재 양안 관계를 둘러싼 갈등의 단면을 볼 수 있어 소개한다. 지난 2월 10일 라이칭더는 인터뷰를 통해 “대만이 중국에 병합된다면 중국의 팽창주의적 야심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 “다음으로 위협받을 국가는 일본, 필리핀,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들이고 그 여파는 결국 미주와 유럽까지 닿을 것”이라며 “어떤 한 국가의 상황은 불가피하게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방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중국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좋은 날은 단 하루도 없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2024년 16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대만 총통〉

이에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대만을 병합하면 일본·필리핀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라이칭더 언급에 대해 “그 발언은 다시금 그 완고한 대만 독립 분자의 본질을 드러냈고, 라이칭더가 평화 파괴자이자 위기 제조자, 전쟁 선동자임을 충분히 증명했다”라면서, “라이칭더가 뭐라 말하고 무엇을 하든 대만이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라는 역사적·법적 사실은 바꿀 수 없고,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기본 구도를 흔들 수 없으며, 중국이 결국 통일될 것이라는 역사적인 대세를 막을 수 없다”, “외세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실패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양상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적어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현상 변경 시도는 강력히 막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차례 야기된 양안 간 무력 충돌 사태 때마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중국을 견제했다.

현재도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미국 안보 전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우선순위로 명시했다. “전 세계 해운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미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대만에 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1도련선 내 어디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이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라며 “동맹국들은 나서서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더 중요하게는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군사적 경계선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제1도련선 보호에 기여할 핵심 동맹국으로 꼽았다. 미국은 “제1도련선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군이 자국 항구와 기타 시설

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제를 목표로 하는 능력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에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능력(새로운 능력을 포함하여)에 초점을 맞춰 국방비를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만을 보더라도 양안 관계가 한국 안보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안 관계의 향후 전망

2023년 미 정보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 중국의 2027 중국 침공설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분석 말고도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구체적 시한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25년 11월 18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 시기를 2027, 2035, 2049년으로 짚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으로 시 주석은 이 해까지 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발전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해 왔다. 2035년은 중국이 국방과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해다. 또한 중국은 2035년까지 중국-대만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2049년은 19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이전에 대만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장기목표를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해이다.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2049년에 달성하겠다고 반복해 왔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이 부흥 목표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2022년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시 주석은 “대만 문제 해결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의 필연적 요구”라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설정은 미국 정보당국 평가와 중국 당국의 군 현대화 목표, 그리고 대만 관련 공식 발언 등에 기반한 추정일 뿐이다. 사실상, 중국은 대만 통일 시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시진핑은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27년 또는 2035년 침공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여

러 차례 “대만 문제를 대대로 넘길 수 없다.”라고 말해, 자신의 집권 기간 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중국 군부 이인자 장유사 당 군사위 부주석의 숙청은 그가 시진핑의 대만 무력 침공을 반대하면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고, 시진핑의 4연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2027년, 2035년, 2049년 세 가지 시점 모두 중국군 내부 역량 목표일 뿐, 실제 대만 침공 시한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의 분석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기간 내 중국이 무리하게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다만, 대만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확고하고 대만 또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강력 저지할 것으로 보여져 양안 관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은 지속될 것이며 언젠가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 경우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양안 관계가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

1992년 공식 수교한 한국과 중국은 30여 년 동안 눈부신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이른바 한한령을 비롯한 무차별적 압박을 가하면서 한중 관계는 사늘해졌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때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을 중시하는 논리가 대응 방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국익을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를 기치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경제 APEC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중 관계 복원에 합의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11년 만이었다. 이어 시 주석의 초청을 받은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에 합의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2024년 신년사 모습. 시 주석은 2023년 신년사에서 “양안은 한 집안”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2024년 신년사에서는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언급하며 대만 통일의 의지를 보여왔다. (사진=BBC 코리아)〉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3화

어렵게 한중 관계 회복에 합의했지만 언제라도 다시금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양안 관계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의 중국견제전략, 특히 제1도련선에서 중국의 진출 억제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바, 앞으로 이러한 양상이 공식화된다면 다시금 중국은 한국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불침항모라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인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 한미는 물론, 한중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양안 관계로 인해 상호 오해와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이 한국의 주권적 조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으로 하여금 힘을 통한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이 중국 이익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 공조로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기도 제목

- 첫째, 힘이 지배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시도록
- 둘째, 한미정상합의 후속 조치를 원만하게 이행하여 핵추진잠수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 셋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이 국제 평화를 깨뜨리고 그들의 국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 넷째, 한중 정상이 양국 관계 전면 복원에 합의했는데 상호 존중과 호혜·평등 원칙 하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양안 관계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 다섯째, 양안 관계가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을 벗어나 원만한 대화와 소통으로 평화적인 해법을 찾게 되며, 공존공영을 이루도록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 매일 헤매는 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배고픔을 극복할 방도로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 북한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변화한 지역은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였던 신의주였습니다. 신의주에는 화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왔고, 북한 각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도매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북한의 전국 각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의주에 와서 물건을 떼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공화국에서 제일 잘 살던 동네가 신의주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도 동해에서 난 해물을 가지고 가서 신의주에서 팔고, 그 돈으로 중국 물건을 떼어와서 장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서 해산물을 한 보따리 싸 들고, 부인과 함께 신의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거쳐 신의주에 도착한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생명줄과 같은 짐을 몽땅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어렵사리 먼 길을 돌아 도착한 곳에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여비도 없었던 저희는 의도치 않게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팔만한 물건이 남지 않았고, 2~3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배를 굶는 제 눈에 강 건너 중국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밤에도 불이 반짝반짝한 강 저편의 모습과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켜는 이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건너편의 반짝임이 마치 천국의 그것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압록강 하류의 넓은 강폭은 이 강을 넘어 저편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 풀칠할 방법을 찾다 보니 중국과 장사하는 화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교 집 근처에서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기도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준 개밥을 훔쳐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겨울이 다가오자 여러 화교 집에서 연탄 만드는 일을 할 사람을 모았습니다. 연탄 가루 물에 이겨 모양을 찍어 겨우내



쓸 연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교들은 바깥에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연탄 찍기를 시키곤 했는데, 일을 잘하라고 먹을 것을 잘 주었기 때문에 저는 연탄 찍는 일자리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쉽게도 연탄 찍는 일에 여자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은 밖에서 저를 기다렸고, 그러면 저는 일하면서 받은 음식을 조금 숨겼다가 부인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자리가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보니 나중에는 피를 뽑아서 팔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매혈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던 어느 날, 옷을 대량으로 유통하던 차고장이 나서 급하게 밤중에 옷 짐을 수레로 일일이 옮기는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일을 하던 저는 어두운 밤을 틈타 짐 속의 옷 몇 벌을 챙겼고, 그 옷을 시장에 팔아 겨우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름에 떠났던 장삿길은 겨울이 되어서야, 그것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저를 마주한 것은 반가움이 아닌 처벌이었습니다. 6개월이나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붙들린 저는 사상 투쟁을 받고 두 달간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버둥거리며 삶을 이어가고 있던 그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붙잡혀 복송되셨고, 보위부에 갇혀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릴 방법을 가지고 돌아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꺾기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것만 같은 막막함이 엄습했습니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여동생이 심한 굶주림에 쓰러져 오늘내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남동생이 아버지의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중국에서 입고 오신 가죽 잠바를 건내며 이것이라도 팔아서 꼭 누나를 살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서 나가면 중국에 연을 달아놓았고 아는 분께 상당한 액수의 돈과 옷가지도 맡겨놓았으니 꼭 밥 먹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눈을 피해 면회한 동생의 손에 손가락으로 ‘예수 믿어라’라고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동생은 저에게 찾아와 “아버지가 ‘예수’라는 걸 믿으라 하던데 ‘예수’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지만, 저도 모르는 바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냉혹한 현실에 갇힌 우리에게 덧없는 소망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을 살리라고 아버지께서 추위를 무릅쓰고 전해주시는 가죽 잠바는 어머니가 집에 손님을 잠시 들였을 때 도둑맞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집에 찾아왔다가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틈을 타서 가죽 잠바를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도둑이 판을 치던 당시 북한인 상황 속에서 여동생을 구할 희망도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직장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바빴던 어느 날 남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 누나가 오래 못 갈 거 같아. 빨리 가야 해”라며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몸을 일으켜 급히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황해도에 외할머니집에서 같이 살았기에 다른 동생들보다도 가깝게 지내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입던 옷도 다 팔아버려 벌거벗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뼈만 남아 앙상했습니다. “동생아! 일어나봐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헉헉” 하며 급한 숨을 몇 차례 들이쉬고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오빠 한번 보고 가겠다고 기다렸던 것처럼 제 목소리를 듣고서 여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온 나라에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관이 아주 비쌌 뿐 아니라, 구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거적때기에 싸서 묻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 동생이 한 말을 어머니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죽으면 저렇게 거적때기에 싸서 묻어주겠지? 엄마, 나는 나무 버스를 타고 가고 싶어.” 동생의 그 소원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저는 반드시 동생의 가는 길만큼은 나무로 짠 관에 태워 보내겠다고 결심하고 장인어른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일하시는 기업소로 찾아가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장인어른께서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창고에 이불장 옷장을 짜려고 해둔 나무가 있으니 그거라도 가져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친구들을 몇몇 불러 모아 나무를 들고 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안 식구가 가족의 관을 만드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 저 없이 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옷도 해 입지 못해 발가벗다시피 한 동생을 그대로 보낼 수 없어 집에 있던 양복을 꺼내 입혔습니다. 죽은 사람에게서는 단추 있는 옷을 입히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나 옷의 단추도 다 뜯어냈습니다. 바지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아내의 운동복 바지를 가져와 입혔습니다. 다음날 동생은 원하던 나무 버스를 타고 산에 묻혔습니다.

아버지도 끝내 살아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 붙잡혀서 고향에 돌아오신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보위부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명 없이 청진 2금속연합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물골을 알아보기도 힘들게 얻어맞아 형편없는 모습을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형

북한 당대회 개막… 김정은, 핵·한미 언급없이 “국가지위 불가역적”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로 꼽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가 2월 19일 막을 올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인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회주의 건

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이나 한국, 핵역량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 당 규약 개정 ▲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제가 다뤄진다.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의 북한에서 당대회는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대외 정책의 방향이 발표될 전망이다. (참고: 연합뉴스) 

편없었는지 수액을 꽂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한동안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사람이 남편임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흔들어 보았지만, 아버지는 한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한줄기 눈물만 흘리시고는 마치 어머니 얼굴을 한번 보고 가기 위해 기다리셨던 것처럼 곧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신을 붙들고 울 새도 없이 보위부원은 시신을 집으로 보내줄 테니 집에 가서 정돈하고 기다리라며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시신은 끝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치범의 시신은 돌려보내지도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잡혀 오신 아버지의 시신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한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은 중국으로부터의 도움이었습니다. 신의주에서



보았던 그 천국의 불빛 같은 강 건너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중국에 당신이 안배한 것이 있다는 말씀은 저에게 중국에 도움을 청해야 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저희 외가 친척 중에는 중국에 사시는 분들이 계셨고, 제가 어릴 적에도 종종 방문하시곤

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보다가 저희 어머니의 사촌 동생, 즉 오촌 외당숙께서 연변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다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저는 외당숙 명의로 편지를 써서 국경 인근 지역인 남양에 가서 중국으로 편지를 부쳤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 남양과 그 인근의 온성, 셋별 지역에 머물며 편지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편지의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그동안 차마 못했던, 도강과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북, '평양 5만세대' 건설 완료... 9차 당대회서 더 웅대한 목표 예고



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송신·송화지구
에, 2023·2024년 및 2025년 상반기에 평양시 북동
쪽 신도시인 화성지구 1·2·3단계에 각 1만 세대를 준
공한 데 이어 2025년 2월 착공한 화성지구 4단계 1
만 세대 건설이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다.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테이프를
끊은 뒤 현장을 둘러보며 “당 제8기 기간에 이룩해
놓은 변혁적 성과와 경험에 토대해 당 제9차 대회
에서는 보다 웅대한 이정과 창조적 목표가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
다. 통신은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새 주택 입주
자들을 직접 꺼안고 축하하는 모습 등을 대거 보
도했다. 김주애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2월 12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7일 외) 🌐

북한이 8차 당대회 기간인 지난 5년 간 ‘최중대 과
업’으로 추진해왔던 평양 5만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월 17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
만세대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참석했다.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은 2021년 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결정된 김정은 정권의 역점 사업으로, 5년
간 매년 1만 세대씩을 지어 수도의 주택난을 해소하

북, ‘중국 파견’ 여성노동자 대거 물갈이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에 여성 노동자들을 대거 교
체해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로 의류 제조업 분야에 집중된 파
견 인력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계약상 고용 기간은
1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단둥시의 한 현지 소식통은

“최근 단둥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새로 파견되었
다”며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노동자들을 대신해 새로 배치된 여성들” 이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
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들”이라며 “단둥 지역에 한 번에 수백 명씩 파견돼 여

러 외무 “추가 대북제재 저지할 것... 비핵화 요구 부적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승인하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2월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
은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대정부 질의에서 “더
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 결의안

도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를 해제하는 결의안을 도입하고 채택되도록 할 수 있
다고 예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이 핵 요소를 포함
한 군사 협력을 적극 증대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일본
이 이 협력에 참여하려고 하는 환경에서 북한 비핵화
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외에도 북한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북
한 파병군이 지원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2024년 6
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이 유라시아 안보 구조 구축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1일) 🌐

러 업체로 나누어 배치되고, 공장 내
부에서 일하며 합숙 생활을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 넘는 고강도 노동을 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은
계약상으로는 3,500~4,000위안



(500~580달러) 이지만, 대부분이 외화벌이 과제금
으로 당에 납부되고 숙식비 등을 제한 300위안(43달
러)-500위안(72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최근 지린성 일대 제조업체들에 북
한 노동자들이 2백명 파견됐다”며 “주로 20대 초반

의 젊은 여성들이 새로 배치된 것으
로 알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 새로 파견된 노동자들은 석
달간의 견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 배
치된다. 해당 소식통은 북한 회사가
외화벌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식비

를 줄이면서 제공되는 식사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언
급했다. 주로 밥과 김치 정도의 간단한 식사만 제공
하고 고기가 반찬으로 나오는 식사는 한 달에 1회 정
도 특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고작이라는 설명이다. (참
고: 자유아시아방송 RFA, 2월 17일) 🌐

북, 중국대사관과 원산 리조트에서 설모임... 중국 관광객 모객하나



<왕야천 북한 주재 중국대사(사진 맨앞 왼쪽 키 큰 남성)가 2월 14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월 15일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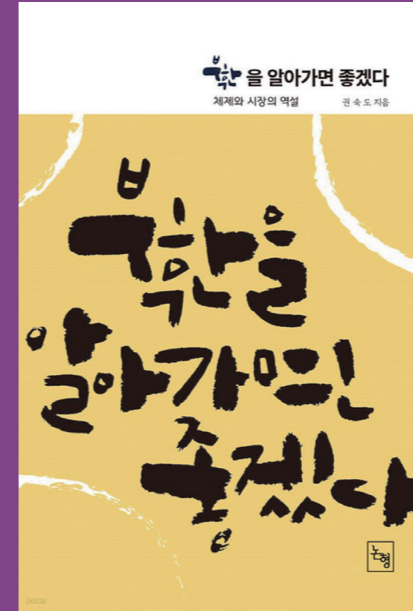
북한이 설을 맞아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주북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해 ‘친선모임’을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월 15일 왕야천 주북 중국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구성원들,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친선모임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참가자들은 바닷가 특유의 이채로운 정서와 매력으로 하여 해양공원으로 이름높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고 전했다.

외무성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대표적 건물인 갈매기 호텔에서 설 연회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조중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피력하고, 설을 맞은 기쁨을 나누며 우의의 정을 두터이 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주북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북한 매체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 여행사의 단체관광 형식으로 러시아인 관광객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불러 관광시설을 보여준 것은 중국 관광객 모객에 나서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5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저 자: 권속도

출판사: 논현

발행일: 2025년 12월 24일

가 격: 18,000원

북한을 소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다.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교과서처럼 정리한 책도 있고, 경제나 군사, 사상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는 책도 있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는 종합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 이념, 경제체제, 군과 핵·미사일, 주민 생활, 통일정책 등 북한 전반에 비교적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이 책의 저자 권속도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구 통일교육원)에서 오랜 기간 통일 교육 현장을 담당해 온 연구자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청소년, 대학생, 공무원, 시민사회 구성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북한을 설명해 왔지만, 많은 사람이 북한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단편적인 정보와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책이 그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으로 쓰였다고 저술 의도를 설명한다.

이러한 저술 의도 때문인지 이 책은 단순히 북한을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요즘 독자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단순히 북한이 이러저러한 사상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김주애로의 세습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노동당과 헌법의 지위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소개한다. 이 외에도 이 책은 분야별로 독자들이 가질만한 의문을 해당 장의 소제목으로 사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설명을 풀어간다. 마치 강의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때 한 번쯤 나왔을 법한 질문들이 책을 통해 다루어지는 느낌이었다. 이렇듯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북한의 모습에 관해 설명해 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이 책의 특징이면서 장점으로 보인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부제에 담긴 ‘체제와 시장의 역설’이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한 정치적 통제와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 성과를 통해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런데 경제 발전을 위해 진행하는 개혁이나 시장 확대는 주민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고, 이런 변화는 다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북한이 개혁과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거나 걸보기엔 모순적인 정책을 되풀이하는 이유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지적이나 평가보다는, 북한 체제가 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환경과 논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점들은 이 책의 제목과 같이 말 그대로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묻어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은 최근에 출간된 서적인 만큼 요즘 북한 관련 이슈에 관하여 비교적 충실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내용이 쉬운것만은 아니지만, 딱딱한 표현 대신 직접 말로 설명하는 느낌이 드는 편안한 문체를 사용하고 분량적으로도 부담을 줄였다. 북한에 대하여 요즘 내용으로 기초부터 살펴보길 원하는 독자에게 잘 맞는 책이 아닐까 싶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들까지 포함하는, 북한을 공부하는 기초 서적으로서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를 소개해 본다. ☺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1월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한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 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기뻐하며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복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 선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안 문제가 동북아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서도 양안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는 가운데 유사시 주한 미군의 양안 배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양안 문제와 이와 연관된 외교 관계 속에서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양안 문제가 평화롭게 다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한 이에 따른 선교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미중 및 중일 갈등 등으로 혼란스러운 외교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선교 현장의 지혜가 요구됩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이 선교사의 체류와 사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적시적으로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20일 기준 현재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천명할 대내외적 방향성이 주목됩니다.

북한 지도 제목

북한이 남북 간 대립 강화와 지도자 우상화 심화 등의 노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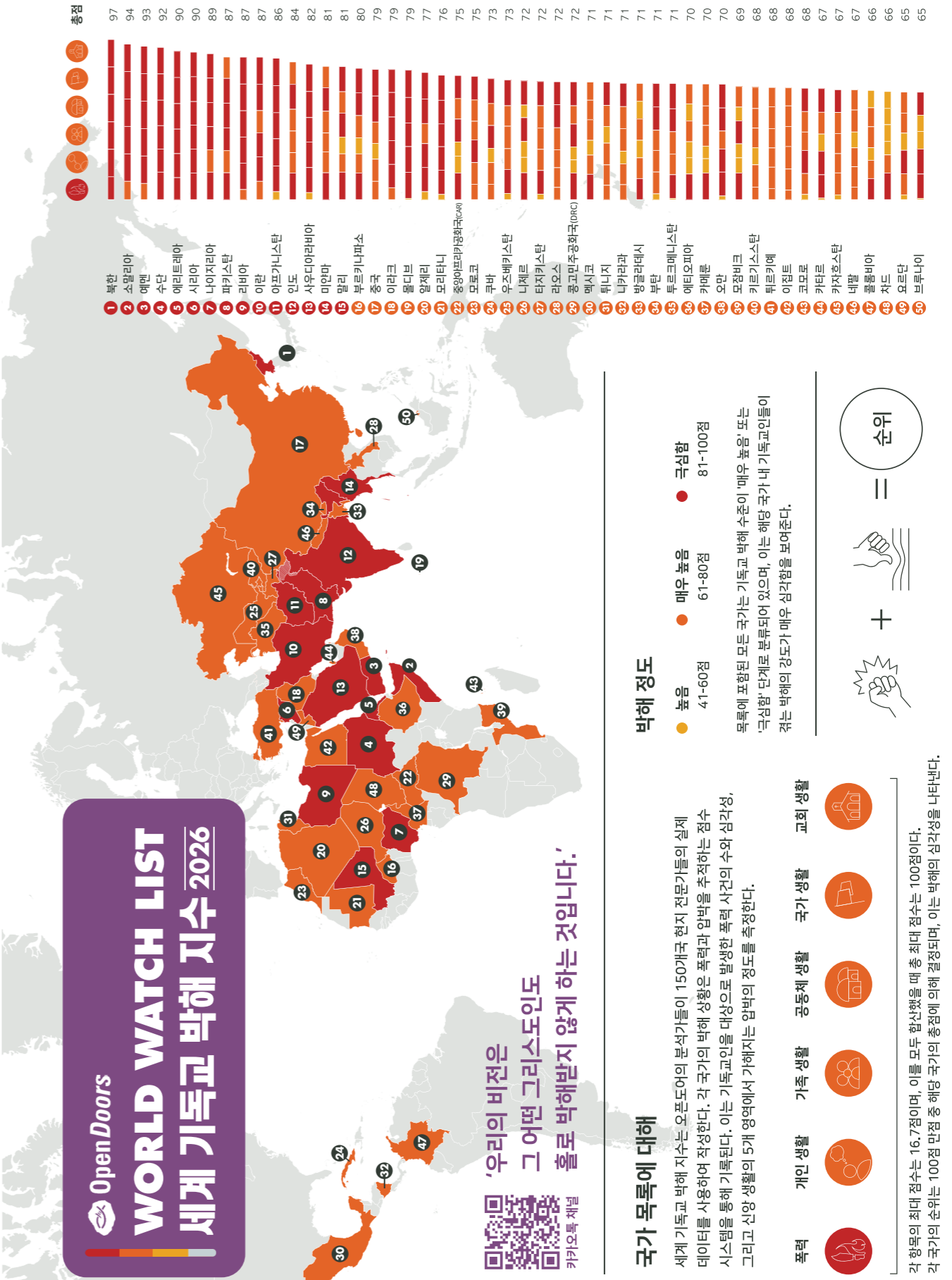
7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부터 북한은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성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민생 경제 증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각종 노력 동원과 세외부담도 큰 부담입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방의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8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현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사역자가 붙잡혀 당국에 의해 조사받을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2월 27일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한
제13회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 정(예정)

| 주차 | 날짜 (매주 월요일) | 강의 주제 | 강사 |
|----|----------------|--------------------|--------------------|
| 1 | 4월 6일 |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 |
| 2 | 4월 13일 | 북한의 정치와 사상 |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
| 3 | 4월 20일 | 북한의 사회와 문화 |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
| 4 | 4월 27일 | 북한의 종교와 교회 | 유관지 (북한교회연구원) |
| 5 | 5월 4일 |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 김바울 (북한지하교회출신 사역자) |
| 6 | 5월 11일 |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
| 7 | 5월 18일 |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DMZ) | |
| | 5월 25일 | 휴강(대체공휴일) | |
| 8 | 6월 1일 |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 정인수 (NKCCC) |
| 9 | 6월 8일 |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 정형신 (뉴코리아교회) |
| 10 | 6월 15일 |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 현장사역자1 |
| 11 | 6월 22일 |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 현장사역자2 |
| 12 | 6월 29일 |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 현장사역자3 |
| | 7-8월 | 비전트립 | |

회비 - 10만원(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월 23일 ~ 3월 31일)

문의 다니엘 선교사 (info@opendoors.or.kr / 050-6722-8448)

